



수산업의 든든한 그림자

수산 인프라 구축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강화

뿌리가 튼튼해야 잎이 무성해진다.

70년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라는 산업의 대동맥을 뚫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90년대 후반 우리가 IMF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금융 인프라가 부실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어떤 한 분야의 기반, 즉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장기적으로 그 분야의 안정적 성장과 쇠퇴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 수산업의 기반은 무엇일까?

당연히 어촌, 어항, 어장이다. 수산업의 공간적 배경인 어촌, 어항, 어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느냐에 따라 어업의 생산성과 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잘 조성된 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어항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촌에서 어업인들이 쾌적하게 휴식을 취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수산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수산업의 공간적 기반인 어촌, 어항, 어장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개발,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우리 한국 어촌어항협회이다.

그동안 협회는 1987년 사단법인 어항협회로 출발하여 이후 특수법인으로, 2005년에는 어촌·어항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촌어항협회로, 또 2007년에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하며 나름 수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산을 보아도 지난 10년간(2013년 463억원) 5.8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만큼 힘을 보태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동안 협회는 어항의 안정성 제고 및 청결한 어항 조성과 어장의 정화·정비, 어촌관광 활성화 등 어업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국가어항의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어항의 청결유지도 주요한 임무이다. 전국의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어항관리선 10척을 투입하여 관리수역 내 청결활동을 하며 매년 5천여톤을 수거하고 있다.

어장에서의 활동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연안어장 환경개선, 불법어구 철거, 낚시터 환경개선 등 꾸준히 어업인의 생산 공간인 어장의 정화·정비에 힘을 쏟았으며 최근에는 폐사 어장에 객토, 경운, 종패살포 등으로 생산성 회복에도 열중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태안지역 유류피해 복구에도 적극 참여하여 오염어장 환경개선과 함께 새로운 소득사업인 갯벌참굴 시범사업도 진행하며 어업인의 아픔을 들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어촌 활성화사업 중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지난 10여년 간 착실히 관리에 참여하여 본 궤도에 올려놓기도 했다.

그렇다고 반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업위주의 운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그동안 사업이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시설의 안정성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사람중심의 수산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 휴먼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협회는 수산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협회의 모토인 쾌적한 어항! 역동하는 어장! 활력있는 어촌!에 그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잘 나타나 있다.

